

##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 그 만남과 갈등

-희생 제물의 경우-

왕대일\*

종교를 떠받치는 근간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다.<sup>1)</sup> 조나단 스미스(Jonathan Z. Smith)가 지적했듯이 희생 제물은 종교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작은 모형(miniature)이다.<sup>2)</sup> 희생 제물은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거울이자 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창문이다. 주전 4세기 이후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만남을 추적하려는 본 논문이 희생 제물에 얽힌 두 사조의 갈등을 하나의 사례로 살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희생 제사와 관련하여 유대 신앙은 독보적이다. 옛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은 희생 제사 의식(sacrificial ritual)이다. 헬라 문화라고 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은 모든 종교가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통과의례인 까닭이다. 여기에서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가 조우(遭遇)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종교적 갈등은 우리 관심을

---

\*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영어 “sacrifice”는 “거룩한(sacer)”과 “만들다(facere)”가 합쳐 이루어진 라틴어 “sacrificium”에서 왔다. 즉,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희생 제물이다. 독일어 “Opfer”는 드린다는 뜻의 라틴어 “offerre”에서 온 말이다. 이 경우 희생 제물은 선물로 드린다는 뜻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희생이라는 말은 보통 포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무엇인가 귀하고 가치 있고 뜻있는 것을 기꺼이 버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버림에는 대가가 따른다. 희생 제물의 의미는 이처럼 복잡적이다.
- 2) Jonathan Z. Smith, “The Domestication of Sacrifice,” Jeffrey Carter, ed., *Understanding Religious Sacrifice: A Reader*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3), 325-341.

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니엘서에 소개된다. 헬라 왕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흉측한 우상을 세웠다(단 8:11; 9:27; 11:31).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헬라 문화를 신봉하는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헬라 종교의 신상을 세운 뒤 그것을 강제로 숭배하게 하였을까? 유대인의 희생 제사가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폭력을 동반하는 야만적인 행위여서 그랬을까? 아니면 유대 종교의 희생 제물을 올림포스 산의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물로 대치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면 유대 신앙이 그리스 철학으로 계몽된 그리스 사람들 눈에 헬라 문화를 해치는 하나의 장애물로 비쳐졌기에 그 대표적 상징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일까?

이 글은 주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이후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가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추적하는 것을 논의의 과제로 삼는다. 희생 제사, 희생 제물에 관한 물음은 이 과제를 푸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이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헬레니즘과 유대이즘의 상관례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었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이 각각 자기들의 시야에서 희생 제물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 1. 헬라 문화와 유대인

유대인과 헬라 문화의 만남은 복합적이다.<sup>3)</sup> 헬레니즘(hellenismos)

---

3) 헬레니즘과 유대이즘의 만남에 대해서는 John J. Collins,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Essays on the Jewish Encounter with Hellenism and Roman Rule* (Leiden; Boston: Brill, 2005), 21-43; idem, "Cult and Culture: The Limits of Hellenization in Juea," J. J. Collins and G. E.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Notre Dame, IN.: Univ. of Notre Dame, 2001), 38-61; Erich Gruen, *Heritage and Hellenism: The Reinvention of Jewish Tradi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은 고대 그리스의 정치, 사회, 언어, 교육, 이념, 문명, 종교 등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sup>4)</sup> 유대이즘(*ioudaismos*)은 유대인의 살아가기에 기초한 삶의 방식, 종교, 풍속 등을 가리킨다(마카베오상 8:17; 비고, 마카베오하 4:13; 11:24). 유대이즘의 뿌리말인 유다이오스(*ioudaios*)는 원래 종교 문화적 용어인 유대인(Jew)이기보다 인종적 용어인 유다 사람(Judean)을 가리켰다. 이 말이 주전 2세기 후반 하스몬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공 생활양식을 가리키는 유대이즘으로 굳어진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의 살아가기 방식이 하스몬 왕조 시대에 비로소 정립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구축되었다. 다만, 유대인들이 독특하게 살아가는 모양이 알렉산더의 세계정복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는 소리다.<sup>5)</sup>

유대이즘은 신앙(cult)으로, 헬레니즘은 문화(culture)로 압축된다. 동진(東進)하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군대가 주전 333년 페르시아를

1998), xiv, 1-40; Lee I. Levine, *Judaism and Hellenism in Antiquity: Conflict or Confluence?*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8), 33-95; Martin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Studies in their Encounter in Palestine in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1 (Philadelphia: Fortress, 1974), 103-106;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종파 형성의 정치적 성격,” 「신약논단」 15:2 (2008), 265-297; 박정수, “초기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의 지혜의 성격(전도서와 벤 시라서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12:1 (2005), 219-248; 왕대일, 『목시문학과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92-131; 한동구, “헬레니즘이 유대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91 (2003), 132-149; 김선정, “신-왕 사상에 관한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갈등,” 「신약논단」 6 (2000), 198-212; 양승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상」 43 (1999, 겨울), 33-67; 양승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서양정신사에서 신, 인간, 역사의 변증법』 (서울: 나남, 1999); 천사무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 형성과 박해의 역사,” 「신학사상」 188 (1995, 봄), 147-169을 보라.

4) John M. G. Barclay, *Jews in the Mediterranean Diaspora* (Edinburgh: Clark, 1996), 82-102; Martin Hengel, *Jews, Greeks and Barbarians* (London: SCM, 1980), 60.

5) 가령 아브데라의 헵카테우스(Hecataeus of Abdera)는 헬레니즘이 고대 서아시아에 등장하던 무렵 유대 땅의 주민들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반(反)사회적이지자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

무너뜨리면서 야기된 헬라 문화와 유대 신앙의 대결은 문화사적으로 정리하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다. 신앙과 문화의 접촉이다. 초월성과 합리성의 대결이다. 이 만남의 틀은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주고받는 줄다리기이지만, 이 만남의 속내는 두 정신 사조가 서로 만나 이루는 적응과 갈등, 융합과 대립이다.

유대인과 헬라 문화의 만남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바클레이(John M. G. Barclay)가 유대인과 헬라 문화의 접촉을 이야기할 때 동화(assimilation), 순응(acculturation), 적응(accommodation)을 엄밀하게 구분하려고 한 것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sup>6)</sup> 유대인들이 얼마나 헬라 사회 환경을 잘 받아들이느냐(동화), 헬라어나 헬라적 가치, 헬라 지성을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하느냐(순응), 헬라 문화를 유대 풍속에 얼마나 원활하게 융합시키느냐(적응)는 것을 따져 유대 풍속과 헬라 문화의 만남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과 헬라 문화의 만남은 우선 적대적이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유대 사회를 무력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와 조우(遭遇)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헬레니즘과 유대이즘은 서로 배타적으로 경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결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는 양 극단을 선택하지 않았다.<sup>7)</sup> 주전 2세기 초 안티오쿠스 3세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때 유대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조상들의 법을 지킬 수 있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 디아스포라도 유대적인 삶의 방식은 지키고 있었다. 심지어 마카비 전쟁 시절에도 헬라 문화는 결코 배타적인 극복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래전 마틴 헝겔(M. Hengel)이 지적했던 대로 유대 사회가 헬라 문화를 수용하던 지평에서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 주전 3세기 툴레미 시대 이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자들이건 디아스포라

6) Barclay, *Jews in the Mediterranean Diaspora*, 93-96.

7) Gruen, *Heritage and Hellenism*, xv, 1-40.

에 속하는 자들이건, 모두 헬라화 된 유대주의(Hellenistic Judaism)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다.<sup>8)</sup> 이렇게 볼 경우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가 서로 혼합되어 이루어진 문화적 토양이 된다.<sup>9)</sup>

오래전 엘리야스 비커만(Elias Bickerman)은 주전 5-4세기 유대 땅은 나일 삼각지에서 시실리아(Cilicia)까지 퍼져 있었던 “그리스-이집트-아시아가 절충된 문화권”(the belt of an eclectic Greco-Egyptian- Asiatic culture)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유대 땅은 헬레니즘이 확산되어 뿌리를 내렸던 트라이앵글의 한복판에 속해 있었다. 행엘은 주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에 대한 동양의 영향이 강했지만, 주전 7-6세기로 내려오면 그리스가 동양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sup>11)</sup> 동방에서 서방으로, 서방에서 동방으로 오고 가는 사회, 문화적 조류 속에서 유대 땅은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

헬라 문명은 고대 서아시아 지역이 주후 5세기 아랍의 침공으로 문화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때까지, 근 천 년 동안 두로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에서 번성하였다. 이 역사적 사실의 중심에 헬레니즘이 신봉하던 온 세상의 헬라화(Hellenization)가 있다. 그래서 주전 3세기 톨레미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든, 이집트의 디아스포라에서 살든, 모두 헬라화 된 유대주의자들이 되었다. 삶의 언어나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동화, 순응, 적응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비문, 동전, 텍스트 같은 여러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그런 사실을 뒷받침한다.<sup>12)</sup> 이렇게 헬라화 된 유대인들은

8)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J. J. Collins and Gregory E.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6-37.

9) Arnaldo Momigliano, “J. G. Droysen between Greeks and Jews,” *Essays in Ancient and Modern Historiography* (Oxford: Oxford Univ. Press, 1977), 307-323.

10) Elias Bickerman, *From Ezra to the Last of the Maccabees* (New York: Schocken Books, 1962), 15.

11)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12

12)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헬레니즘의 영향이 구체화된 것은 페르시아 시대부터다. 알렉산더 이전에 이미 페니키아와 유대 땅에서 그리스식 동전, 아테네식 화병,

주후 1세기 로마 시대에 들어 와서도 크게 활약하게 된다(행 6; 12; 21-27장). 예루살렘, 갈릴리, 바빌론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어를 이중 언어로 능숙하게 구사하던 유대인들이었다. 문화의 지평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 헬라어, 헬라 사상, 헬라 문명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신앙의 지평에서 헬라 문화와 유대 풍속은 서로 갈등하는 구도를 띠었기 때문이다.

## 2. 헬라 문화와 유대 신앙-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경우

유대리즘은 헬라적/디아스포라 유대리즘(Hellenistic/Diaspora Judaism)과 팔레스타인 유대리즘(Palestinian Judaism)으로 구분된다.<sup>13)</sup> 전자는 이집트 디아스포라가 발전시킨 유대 신앙이나 풍속이고, 후자는 유대 땅의 유대 공동체가 계승한 유대 신앙이다. 외관상 디아스포라가 수용한 헬레니즘과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겪은 헬레니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도 디아스포라 유대리즘은 책의 이름으로 이방인의 이름을 차용하는 형식인데 비해, 동시대 팔레스타인 유대리즘은 성서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따온다. 전자의 경우 시빌(Sibyl), 포실리데스(Phocylides), 오르페우스(Orpheus), 아리스테아스(Aristeas) 같은 제목이지만, 후자의 경우 에녹, 에스라, 모세, 아브라함 같은 이름이 거론된다.

재미있는 점은 헬레니즘이 창궐하던 당시 헬레니즘에 대한 반항을 글로 표현한 사람들은 오로지 동방의 유대인들뿐이었다는 사실이다.<sup>14)</sup>

---

그리스 예술품 등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리스 땅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출신 노예들이 있었으며, 그리스 군대에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이 용병(傭兵)으로 참가하였다.

13) Collins, "Cult and Culture: The Limits of Hellenization in Judea," 38-61; Barclay, *Jews in the Mediterranean Diaspora*, 82-102.

그만큼 유대 신앙은 헬라 문화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앞에서 거론한 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헬레니즘은 유대 땅에서나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유대 사회에 고루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신앙적, 종교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헬라적 유대주의나 유대 땅의 유대 공동체는 모두 헬라 문화와의 만남에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물론 그 진통의 정도가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보다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 땅의 유대 공동체에서 더 거셌을 것이다. 가령 주전 2세기 중반 예루살렘을 헬라의 도시(polis)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유대인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헬라 문화가 유대인의 정체성(Jewish identity)과 유대 사회의 안정성(Jewish stability)을 본격적으로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sup>15)</sup> 그러나 이 저항 운동에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만큼 헬라 문화에 대한 유대 신앙의 체감온도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였을 뿐, 헬라 문화와 유대 종교가 서로 우호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사회나 유대 땅의 유대 공동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sup>16)</sup> 그 중에 노예로 끌려온 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sup>17)</sup> 그들은 대체로 기회의 땅 이집트를 찾아 스스로 이주해 온 자들이었다. 그랬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라보는 헬라

14) 위 각주에서 언급한 바클레이(J. M. G. Barclay), 그루엔(E. Gruen), 콜린스(J. Collins)가 이 점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 비교, M. Goodman, “Jewish Literature Composed in Greek,” G. Veremes, F. Millar, and M. Goodman, rev. and eds.,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ge of Jesus Christ*, 3 (Edinburgh: Clark, 1973-1987), 2. 470-704.

15) 왕대일, 『목시문학과 종말론』, 102.

16) 유대 왕국이 멸망하기 전 이집트에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레미야의 예언(렘 44:1-3; 46:14), 나일 강 상류 엘레판틴(Elephantine)의 유대 공동체(주전 7-5세기),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

17) 아리스테아스는 톨레미(Ptolemy) I세가 이집트로 끌고 온 유대 노예들의 수가 100,000명에 달한다고 적고 있다(“아리스테아스의 편지,” 12-14.).

문화에 대한 정서는 그리스의 식민지 지배 정책에 시달려야 했던 본토(유대 땅) 유대인 사회의 그것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에리히 그루헨(Erich Gruen)이 지적했듯이 톨레미 시대 이집트 땅에서 번성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회당을 통치자인 톨레미에게 헌정하였으며, 유대 종교 전통에 따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굳이 요구하지 않았다.<sup>18)</sup> 안식일에는 공공장소에 소집되거나 일하는 것이 면제되었다. 사 람들에 따라서는 병역의 의무에서도 면제되었다.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종교적 관습을 아무 제재 없이 지킬 수 있었다. 그루헨은 이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살아가기 방식을 종교 혼합주의(syncretism)라기보다 두 종교의 공생(symbiosis)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sup>19)</sup> 이런 시각을 존중할 때 이집트 땅에 거주하던 유대 디아스포라의 문헌은 변증적(apologetic), 홍보적(propagandistic) 성격을 띠게 된다.<sup>20)</sup>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사회를 향해서 유대이즘을 옹호하거나 이방인 사회에서 개종자를 얻으려는 의도로 글을 썼다는 것이다. 요세푸스(Josephus)나 필로(Philo) 같은 자들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과연 꼭 그렇게만 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철허리코퍼(V. Tcherikover)의 답변은 우리 관심을 끈다. 그는 유대인들이 쓴 글은 철두철미하게 유대 사회에 썼지, 결코 이방인을 독자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sup>21)</sup> 즉, 헬라 사회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쓴 글에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헬레니즘의 유희(!)에 맞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욱 유대 전통에

18) E. Gruen, *Diaspora. Jews amidst Greeks and Romans* (Cambridge, MA.: Harvard, 2002), 68-70.

19) Gruen, *Diaspora, Jews amidst Greeks and Romans*, 70.

20) 이런 입장을 지닌 고전적인 연구는 M. Friedländer, *Geschichte der jüdischen Apologetik Vorgeschichte des Christentums* (Zurich: Schmidt, 1903)이다.

21) V. Tcherikover, "Jewish Apologetic Literature Reconsidered," *Eos* 48 (1956), 169-193, J. J. Collins, "Hellenistic Judaism in Recent Scholarship,"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Essays on the Jewish Encounter with Hellenism and Roman Rule* (Leiden; Boston: Brill, 2005), 2-3에서 증인.

따라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였지 헬라 문화에 동화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현실적으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는 낯설지 않았다. 그들에게 헬라어는 모국어와 다르지 않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을 접해야만 했다. 헬라 사회의 유대주의가 남긴 글들은 헬라 문화라는 토양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적 가치와 신념을 적극적, 창의적으로 일깨워주려는 의도를 지녔다.<sup>22)</sup>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나 행동양식에서 그리스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과감하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고 유대인보다 열등하며, 야만적인 적대자라는 것이다. 헬라어를 사용해서 글을 쓴다고 해서, 곧 헬라적 환경에 순응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헬라 문화를 긍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반(反)헬라적 의도를 가지고 헬라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히브리적 사유를 펼쳐갔다고 볼 수도 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The Letter of Aristeas)는 이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톨레미 통치 시절 헬라 문화와 유대 신앙이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드러내는 예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톨레미 2세(Ptolemy II Philadelphus)의 지시로 유대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던 과정을 전하고 있다. 이 텍스트는 외관상 아리스테아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유대 신앙과 모세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글에 소개된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이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불평도 늘어놓지 않는다. 도리어 유대 제사장 엘리아살(Elieazar)이 털어놓는 헬라 문화에 대한 과격한 비판에 동감하고 있다. 이 비판의 속내는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

22) Gruen, *Heritage and Hellenism*, 292-293; Gruen, *Diaspora, Jews amidst Greeks and Romans*, 135-212.

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반드시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자기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콜린스(John Collins)가 지적하였듯이 그리스 사람들을 상관으로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었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낸다.<sup>23)</sup> 아리스테아스 편지는 그 내면에서 헬라적 이념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껴안고 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대단히 낮은 유대인의 음식법, 다신론, 우상 숭배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알레고리적으로, 곧 그리스적 이성으로 해명하고 있다. 헬라어는 유대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문학도 유대의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 유대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종교적 풍속에서 야기된다.<sup>24)</sup> 실제로 우상 숭배나 다신론은 헬라 문화, 헬라 사회를 장식하는 뼈대에 속한다. 헬라 사회 속에 살면서 헬라 사람 모두가 존중하고 따르는 종교 의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유대 신앙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런 까닭에 이집트의 유대 디아스포라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형식을 빌려 유대이즘은 이방인들의 지성과 덕에 잘 어울리는 이성적 철학이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유대 신앙이 아리스테아스라는 그리스 사람의 입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이 백성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이 신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왕이시여 우리는 그 신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제우스(Zeus)와 디스(Dis)라고 부를 뿐입니다(아리스테아스의 편지 16).

무슨 소리인가? 참 신은 유대인이 섬기는 신이든,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 한 분이고 같은 분이라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비록 유대

23) Collins,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12.

24) Collins,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15.

인들처럼 예배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 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테아스가 유대 신앙을 변증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이와는 달리 유대 신앙을 변호하는 제사장 엘리아살은 유대 풍속에 대한 이방 사회의 비판을 반영한다. 이 텍스트에서 제사장의 변증을 듣는 독자는 아리스테아스나 톨레미 같은 그리스 지성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독자는 유대인이다.<sup>25)</sup> 무슨 뜻인가? 톨레미 통치 시절 유대 디아스포라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동료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하나님 숭배와 우상 숭배의 거부가 결코 반(反)헬라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신앙은 헬라 신학의 극적인 형태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유일신 신앙을 종교가 아닌 철학으로 꾸미고 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는 헬라 세계 속에서 유대 방식을 고집스레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한 헬라 문화의 불편함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적대적으로 대했느냐 아니면 우호적으로 보았느냐는 물음을 단순한 잣대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헬라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헬라 문화에 손을 뻗었느냐보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헬라 문화를 활용하였는지 판단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헬라 문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다. 헬라적 유대주의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고쳐왔다는 것이다.<sup>26)</sup> 바클레이가 말한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와 “문화적 협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헬라 문화와 갈등을 겪는 좁은 길을 걸어야만 했다.

25) Collins,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17.

26) Barclay, “Using and Refusing. Jewish Identity Strategies under the Hegemony of Hellenism,” M. Konradt and U. Steinert, eds., *Ethos und Identität. Einbeit und Vielfalt des Judentums in hellenistisch-römischer Zeit* (Paderborn: Schöningh, 2002), 13-25.

### 3.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팔레스타인 유대 공동체의 경우

유대 땅의 유대 공동체도 헬라 문화를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유대 땅의 유대 사회를 장악한 헬레니즘 왕권도 처음에는 유대인만의 살아가는 풍속을 법으로 인정하였다. 사실, 팔레스타인 유대 공동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그 정서에서 많이 다르다. 유대인 본토 땅에 자리 잡은 유대 공동체는 필로 같은 철학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대신 쿰란 사본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율법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그렇기에 주전 2세기 초 안티오쿠스 가문이 유대 땅을 지배하기 시작한 뒤에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그 고유 규정에 따라 사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종교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유대인의 하나님을 그리스 올림포스의 제우스와 동일시하려는 종교적 해명을 유대인들이 선뜻 따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헬라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polis)의 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무신론적인 자세로 보였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다신론의 차원에서 거부했다면, 동시대의 헬라 사람들은 유대 신앙을 무신론의 차원에서 비난하였다. 헬라 사회에서 종교는 문화와 정치의 모습을 지녔다. 유대인들이 헬라 도시의 신을 숭배하는 의식에 우상 숭배라며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을 때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였다.<sup>27)</sup> 그만큼 헬라 문화는 종교의 영역에서 유대 신앙과 갈등을 겪었다.

우리는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이즘은 신앙과 문화를 구별하여 인식하였지만 팔레스타인 유대이즘은 신앙과 문화를 동일시하였다고 말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 땅의 유대인이 문화 속의 신앙을 서로 다르게 여겼다는 소리다. 하지만 엄밀하게 판단할 때 유대 신앙은 팔레스타인 유대이즘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이즘이든, 헬라어나 헬라 교육이나 헬라 문학이나 헬라식 운동 경기 같은 헬라 문화를 수용하는 일에

27) Barclay, *Jews in the Mediterranean Diaspora*, 181-228.

서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신앙과 종교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신앙과 종교를 실천하는 일에서 유대 신앙 공동체는 그것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든 결코 헬레니즘을 수용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살필 때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 사이에 벌어진 대결과 갈등이 충돌과 박해로 변진 경우는 두 번이다. 한 번은 주전 175-164년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가 유대 땅에서 일으킨 사건이고, 다른 한 번은 주후 38년 로마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Gaius Caligula, 37-41년)가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저지른 사건이다. 전자는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의 대결을 상징하고, 후자는 유대 사상과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나타낸다.

칼리굴라의 유대인 탄압은 우리 논의의 영역에서 벗어난다.<sup>28)</sup> 그러나 칼리굴라의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곳이 유대 디아스포라의 땅인 알렉산드리아였던 점은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집트 디아스포라들은 원래 그레코-로마 문명을 본질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주후 66년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폭동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종언을 고하게 되었던 115-118년에 가서야 유대인들은 트라야누스(Trajanus)가 지배하던 로마에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유대 디아스포라 사회가 그레코 로마 문명에 대한 반감을 무력으로 나타낸 것은 툴레미가 이집트 땅을 통치한 이후 이때가 처음이다. 유대인에 대한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인종적 억압에 유대인들이 폭력으로 저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 통치 때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헬라 문화와 유대 신앙의 충돌은 이와는 달랐다. 주전 2세기의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던 지도층이 유대 사회를 헬라식

28) 이 문제는 천사무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 형성과 박해의 역사,” 162-169을 보라.

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는 데서 칼리굴라의 유대인 탄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른바 유대 신앙에 대한 헬라식 개혁이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을 야기한 것이다. 주전 175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 사회의 헬라적 개혁을 대대적으로 시도하였다. 사실, 이 헬라적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자는 헬라 왕이 아니었다. 마카베오서에 따르면 오니아스 3세(Onias III)에 이어 대제사장직에 오르려고 서로 대립하였던 유대인 야손(Jason)과 메넬라우스(Menelaus)가 헬라식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 무렵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주위의 이방인들과 맹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였습니까?”하고 꾀었다. 이 말이 그럴듯하여 백성들 중에서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생활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곧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우고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마카베오상 1:11-15).

야손과 메넬라우스는 모두 헬라화 된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유대 풍속의 반역자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없애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세운 사건은 이런 반역의 흐름에서 파악해야 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공포했다(마카베오상 1:45). 그 후 주전 167년 12월 8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마카베오상 1:59; 비교, 마카베오하 5:5).<sup>29)</sup>

29)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세운 파멸의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 설명이 있다. 요세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에 대한 고발은 다니엘의 묵시록에서 발견된다(단 8:11; 9:27; 11:31). 다니엘의 묵시록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 곳에 세울 것이다.”고 고발하고 있다(단 11:31). 이스라엘 신앙에 따르면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출 29:38-42; 레 6:9; 민 28:2-8). 매일 드리는 번제물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런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유대 사회를 헬라화하려는 프로그램의 일부였을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전의 제단 위에 제우스 상을 세운 것은 주전 4세기 이후 희생 제물을 드리는 민간신앙이 공공장소에서 차츰 쇠퇴해져 갔던 헬라 사조를 반영하는 결과였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빅커만(Elias Bickerman)이 그렇게 생각하였다.<sup>30)</sup>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산에 도입하려고 한 예배는 이성적 자연종교를 신봉하는 헬라적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었다고 본다.<sup>31)</sup> 유대 신앙이 반복적으로 바치는 동물 희생 제물은 아직 계몽되지 못한 자들의 종교적 풍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대 신앙에 대한 박해는 이런 신념을 배경으로 펼쳐졌다는 것이다. 유대 사회가 계몽되기 위해서는 유대 신앙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의 결과가 종교혼합적 형태로 진행된 유대 종교의 헬라화이다. 사람은 마땅히 하늘의 하나님을 숭배해야

---

스는 그것을 성전의 번제단 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교도 제단을 설치했다는 뜻으로 읽는다(마카베오하 6:5). 제롬은 그것을 주피터(Jupiter) 올림포스 같은 신상을 세운 것으로 읽는다. 이와는 달리 그것을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동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다니엘의 묵시록이 고발하는 가증스런 파멸의 우상은 이교도 제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Minneapolis: Fortress, 1993), 357-358.

30) Elias Bickerman, *The God of the Maccabees. Studies in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Maccabean Revolt* (Leiden: Brill, 1979), 85-88.

31) Bickerman, *The God of the Maccabees*, 87.

된다. 하늘의 하나님은 헬라화 된 페니키아 사람들이 신봉하는 바알(Baal Shamem)과 그리스 올림포스 산의 제우스와 동일시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일종의 그릇된 미신으로 보았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대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신앙의 합리적 형태를 복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4. 헬라 문화와 희생 제물

하지만 헬라 문화가 본래부터 희생 제물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원래 헬라 사람들도 유대 신앙 못지않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 헬라 문화의 종교의식(ritual)에 대한 연구로 고전적인 학자는 발터 부르컷(Walter Burkert)이다.<sup>32)</sup> 부르컷은 호머(Homer)와 그리스 비극에 묘사된 그리스 사람들의 희생 제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상히 전한다.<sup>33)</sup>

제물을 바치는 자는 우선 몸을 씻고 정결한 의복으로 바꿔 입는다.

---

32) 발터 부르컷(Walter Burkert)은 옛 그리스 종교와 신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로 독일의 에어랑겐과 뮌헨 대학에서 고전 역사와 철학을 연구한 뒤 1955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에어랑겐, 하버드,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인류학, 역사, 비교문화, 고전 문학 등을 활용하여 그리스 종교에 대해서, 특히 희생 제사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독일어로 된 그의 연구들은 대부분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Lore and Science in Ancient Pythagoreanism*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1972), *Homo Necans: The Anthropology of Ancient Greek Sacrificial Ritual and Myt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1983), *Greek Religion Archaic and Classical* (Melbourne: Wiley-Blackwell, 1977, 1985), *Structure and History in Greek Myth and Ritua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The Orientalizing Revolu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1992), *Creation and the Sacred: Tracks of Biology in early Religion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33) 부르컷의 *Homo Necans*, 1-29가 Jeffrey Carter, *Understanding Religious Sacrifice: A Reader*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3), 212-238에 다시 실려 있다. 여기에 소개된 희생 제사 의식은 Burkert, "Homo Necans," 214-215를 옮긴 것이다.

몸에는 장식품을 달고 머리에는 화관을 쓴다. 그는 한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때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도 리듬에 맞춰 노래 부르며 행렬을 지어 뒤따른다. 제물로 도살될 짐승이 행렬 앞에 이끌려 나오는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걸모습을 꾸미고 머리에는 리본을 메고 뺨에는 금장식을 걸쳤다. 축제 행렬은 희생 제물을 바칠 바위가 있는 곳으로 향한다. 제단으로 쓰일 바위는 아주 오래전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 제단 꼭대기에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제단 주변에는 향로가 피어 있어 독특한 향기가 사방 공중에 퍼진다. 이 때 피리로 내는 악기소리가 퍼지면, 뚜껑을 덮은 바구니를 든 순결한 처녀가 길을 인도한다. 제단 옆에는 물 항아리가 놓여 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행렬이 성소에 당도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은 원형으로 모인다. 원형 안은 거룩한 곳이고 원형 밖은 세속에 속한 땅이다. 희생 제사에 쓰일 바구니와 물 항아리가 회중 주변에 놓이면 사람들이 손을 씻는다. 제물로 바칠 짐승의 몸 위에도 물을 뿌린다. 축제를 인도하는 자가 제물로 사용될 짐승에게 소리친다. 몸을 흔들어라. 짐승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에서 물을 털어내고자 고개를 휘저으며 몸을 흔든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짐승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제물이 황소라면 물을 한 번 더 뿌린다. 소가 머리를 크게 숙이게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제물로 바칠 짐승에게로 쏠린다. 바구니에 손을 넣어 갈지 않은 보리를 한 주먹씩 움켜쥔다. 보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농산물이다. 이 보리는 갈기 위해서나 먹기 위한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크게 기도하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보리를 짐승의 몸 위에, 제단에, 땅에 뿌린다. 보리를 담아두었던 바구니 밑바닥에는 칼이 놓여 있었다. 바구니의 보리가 동나면 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축제를 이끄는 제사장이 손에 칼을 잡고 제물로 바쳐질 짐승에게로 다가간다. 짐승은 제사장의 손에 들린 칼을 보지 못한다. 제사장은 짐승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숨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머리 근처에서 털 한 줌을 베어 불에 던진다.

이제부터가 극적인 순간이다. 짐승의 몸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한 여인이 하늘을 향해 피성을 지른다. 축제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는 신호다. 제물의 몸에서 솟구치는 피는 땅에 쏟으면 안 된다. 이 피는 반드시 제단과 제단 위의 석쇠와 제단의 우묵한 구멍에 모아야 한다. 조그마한 제물이라면 직접 제단 위에 올려놓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피는 정해진 그릇에 따로 담아 제단(바위) 위에 뿌린다.

이제 제물의 고기를 베고 나누는 예식이 펼쳐진다. 피기하고 낮설고 흥물스런 내장은 특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심장은 제단 위에 올려지고, 간장(肝臟)을 비롯한 내장부위는 제단 불에 놓아 구운 다음 즉시 먹어 치운다. 짐승을 죽이던 공포의 순간이 음식을 나누는 기쁨의 축제로 돌변한다. 담즙은 먹어서는 안 되고 버려야 한다. 뼈도 먹어서는 안 된다. 뼈를 가지고 짐승의 외관을 재구성한다. 넓적다리뼈와 골반은 특별한 절차에 따라 제단 위에 놓인다. 남은 것들은 모두 정결하게 하는 불로 태운다. 소나 양의 해골이나 염소 뿔은 성소에 보관하여 성별의식의 영원한 증거로 삼는다. 제물의 피는 포도주 헌주(獻酒)에 부어 불에 던져지고 빵을 굽는다. 술의 알코올이 불꽃을 확대오르게 하면 분위기는 한층 더 요란해진다. 그러다가 불꽃이 잦아들면서 흥겹게 떠들던 축제는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제물의 가죽은 사람들에게 판다. 성소를 유지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제사의식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헬라 문화의 정신사는 차츰 신화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던 동물 제사를 피비린내가 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한다.<sup>34)</sup> 마치 구약의 예언자가 동물 희생 제사를 사람을 죽이는 짓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하였듯이(사 66:3) 세네카(Seneca) 등은 희생 제사를 비인도적인 종교 행위로 보았다. 알렉산더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신론 신화에 기초한 민간신앙(동물 희생 제사)은 공공무대에서 수그러들고 있었다. 동물 희생 제사에 대한 반감은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널리 확산된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예루살렘

34) 헬라 문화가 신화에서 철학으로 정형화되어 가는 시대적 변화와 알렉산더 이후 공적 무대에서 쇠퇴하기 시작한 민간 신앙에 대해서는 양승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서양정신사에서 신, 인간, 역사의 변증법』, 40-42, 46-47을 보라.

의 한 성전에서만 행해졌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밖의 유대이즘은 유대 신앙을 본질적으로 동물 희생 제사 없는 종교로 만들었던 것이다.<sup>35)</sup> 부르קות은 이런 생각이 헬라 철학의 전통을 받아들인 기독교 의식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sup>36)</sup> 기독교 신앙은 한편으로는 희생 제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희생 제물이란 단번에 드리는 제물(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치게 된다고 보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핀 고대 그리스의 희생 제사 의식은 그것이 유대 종교의 희생 제사 예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주의를 끈다. 헬라 사람들이 드렸던 희생 제물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하나는 의식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제물을 도살하는 과정이며, 나머지 하나는 제물의 피와 고기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의식 준비의 요점은 정결이다. 의식의 절정은 제물을 도살하는 일, 곧 죽음/죽임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깔려 있다. 마지막으로 제물로 드린 고기를 불에 구워 나누어 먹는 의식은 거룩함을 경험한 자들이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잔치다. 이것은 레위기의 화목제(제바흐 셀라밈)와 아주 흡사하다. 불의 제단이나 피 의식, 고기를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는 레위기의 제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두 종교 모두 큰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과 향을 피우고 고기는 서로 나눠 먹고 있지 않은가?<sup>37)</sup>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동물 희생 제사가 고대 세계에서는 꺾이나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의식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

35) Burkert, "Homo Necans," 216.

36) Burkert, "Homo Necans," 216.

37) 제물, 제단, 제물을 잡는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가령 소가 히브리어로는 쇼르(shor), 헬라어로는 타우로스(tauros)다. 제단은 히브리어로 바마(bamah), 헬라어로는 보모스(bomos)다. 제물을 잡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바흐(zebah), 헬라어로는 스페학(sphag)이다. John P. Brown, *Ancient Israel and Ancient Greece: Religion, Politics, and Culture* (Minneapolis: Fortress, 2003), 197.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사람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풍속에서 유대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헬라 사람들의 눈에 유대 신앙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풍속은 그리 낯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헬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했을 때 매일 드리던 제사를 파괴시켜 버렸을까? 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헬라 신앙을 세우게 되었을까?

## 5. 맺음말-유대 신앙과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은 죽임을 동반한다. 희생 제물은 제도화된 폭력(institutionalized violence)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던 유대 신앙의 오디세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던 여정은 유대, 기독교 종교의 핵심에 희생과 폭력이 은밀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제시한다. 이 점은 헬라 문화도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할 때는 누구나 수소의 넓적다리 조각들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했다. 제물을 도살하고, 제물의 피를 단에 쏟고,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나눠 먹는 행위는 신앙 영역에 속하는 경건한 행위였다. 헬라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리에 제우스가 임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제우스를 예배하는 자가 제우스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때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출 때가 아니다. 도끼로 짐승을 도살하고 그 짐승의 피가 분출하며 그 짐승의 살이 불에 타오르게 될 때 그는 신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였다. 신이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정결한 사람이 거행하는 거룩한 행동은 희생 제물을 죽이는(도살하는) 과정이다.

주전 2세기 팔레스타인 유대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의 하나님인 그리스의 제우스와 동일한 신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었다. 야손과 메넬라우스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 하지만 야손과 메넬라우스가 유대 신앙

의 전통적 특성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헬라 문화에 친숙한 방식대로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도 확인했듯이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와 다신론 숭배를 비난하였다. 그리스 종교의 신을 이해하고 숭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헬라식 종교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우겼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은 신으로 간주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지던 신앙 관습(희생 제사)을 기꺼이 없애버리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sup>38)</sup>

그러기에 유대 신앙의 헬라적 개혁과 헬라의 유대 신앙 박해는 서로 구별해야 한다. 이 두 사건의 이면에는 유대인 메넬라우스가 헬라 왕 밑에서 주도했던 정치, 사회, 종교적 혼란이 있다. 메넬라우스는 왕에게 엄청난 공물을 바치기로 약정한 뒤 야손을 제치고 대제사장 직책을 찬탈했다. 그는 사독 가문의 자손이 아니었다. 더구나 그는 왕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을 은밀하게 시장에 내다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마카베오하 4:39-42).

그렇지만 유대 사회가 온통 폭동의 소요에 휘말리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에 적용한 유대 신앙에 대한 박해에서 찾아야 한다.<sup>39)</sup>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원정 중에 있었을 때 그가 도중에 급사했다는 소문이 유대 땅에 퍼지게 되자 메넬라우스에게 쫓겨났었던 야손이 천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

38) Collins,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35.

39)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태의 원인을 안티오쿠스에게 돌리는 자들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하였다고 보려고 한다(참조, 단 11:30). 유대인의 종교적 풍속을 금하는 안티오쿠스의 칙령(마카베오상 1:41)은 유대 땅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 디아스포라 사회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칙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종교탄압의 진정한 배후를 메넬라우스로 보는 자들은 메넬라우스가 뒷날 모든 소요사태의 장본인으로 여겨져서 안티오쿠스 5세(Antiochus V Eupator)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마카베오하 13:4).

렘을 공격하였던 일이 있었다. 놀란 메넬라우스는 성채로 숨었고 그 소식을 접한 왕은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단정하였다(마카베오하 5:11). 왕은 군대를 보내 폭풍우처럼 예루살렘 성을 덮치게 하였다.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다윗 성은 시리아 군대가 거주하는 진지가 되었으며,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던 희생 제사는 금지되었다. 마카비 가문이 주도하는 유대인의 폭동은 바로 이런 조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마카베오하 16:1-2), 성전을 약탈하며(마카베오상 1:16-24), 헬레니즘을 강요하였던 일(마카베오상 1:44-50)이 유대인들에게는 헬레니즘을 거부하는 동기가 되었다.<sup>40)</sup>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대 신앙의 풍속을 미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철폐하였다. 결코 유대 신앙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유대인은 헬라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만의 신앙을 온 세상 사람들이 더불어 숭상하는 보편적 종교(cosmopolitan universalism)로 예루살렘의 종교 환경을 변혁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를 폐지하고 제우스나 디오니수스(Dionysus)를 숭배하게 한 일은 유대이즘과 헬레니즘이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서 서로 극력하게 대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사례다. 콜린스의 지적은 이 점에서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과 유대이즘의 만남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디아스포라에서든, 이스라엘 땅에서든, 예배와 신앙의 문제에서는 유대적 분리주의를 고집스레 지켰다는 점이다. 헬라화에는 정녕 어떤 범위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문화의 구별로 고스란히 드러났다.<sup>41)</sup>

40) 헬라적 개혁과 유대 신앙의 반개혁에 대해서는 왕대일, 『목시문학과 종말론』, 108-131을 보라. Collins,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39-40.

41) Collins,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43.

헬라 문화의 특성은 보편성이다. 보편주의다.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생각하던 유대인의 풍속을 헬라 제국 안에 사는 시민 모두가 숭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로 바꾸고자 하였다.<sup>42)</sup> 유대인들이 그를 가리켜 에피파네스(epiphanes), 곧 신의 현현이 아니라 에피마네스(epimanes), 곧 미친 사람이라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sup>43)</sup>

유대인을 위한 헬라식 종교개혁은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헬라 문화가 유대 신앙의 배타적 자기 정체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헬라 문화는 헬라적 개혁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헬레니즘의 영향 속에 기록된 수많은 유대 문헌들이 모두 그런 결과들에 속한다.<sup>44)</sup> 그렇지만 유대 신앙에 대한 헬라의 박해가 실패하고 난 뒤 유대 땅의 헬레니즘은 유대인의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을 더 위협할 수 없었다.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는 온 세계의 헬라화에 맞서 주후 2세기 말 예후다 하-나시(Jehuda Ha-Nasi)가 미쉬나를 편찬하게 되고, 그 결과 유대 사회의 인종적, 종교적 정체성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랍비주의(Rabbinism) 유대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sup>45)</sup>

42) 비교, Brown, *Ancient Israel and Ancient Greece*, 207.

43) Collins,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38.

44) 예를 들어 희년서(Jubilees), 외경 창세기(Genesis Apocryphon), 유폴레모스(Eupolemos), 요세푸스의 고대사(Antiquities) 등이 그런 결과에 속한다. 이스라엘 역사의 다시 쓰기에 해당되는 이런 글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역대기도 전형적인 동양적 역사 기록인 열왕기 같은 역사 기술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자기 자신의 역사적 기준에 맞춰 수정하면서 그 과거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그럴듯하게 나타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헤로도투스(Heroeotus)나 밀레투스(Miletus)의 헤카테우스(Hecataeus)의 역사 기록 방식과 비슷하다. 이 모든 글에서 공통적으로 돋보이는 역사관은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던 신의 인과응보율(divine retribution)과 개인적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이다.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11; Bickerman, *From Ezra to the Last of the Maccabees*, 20-31, 특히 21-24.

45) 비교, Hengel, “Judaism and Hellenism Revisited,” 10, 29.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도살하는 행위는 가장 거룩한 체험이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식에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은 ‘살생하는 인간’(homo necans)으로 변신하게 된다.<sup>46)</sup> 그 변신에서 헬라 문화나 유대 신앙의 본질은 서로 다르지 않았다. 다만 헬라 문화가 추구하던 보편 정신(universalism)이 유대 신앙의 배타성(particularity)을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가 주전 2세기 유대 신앙에 대한 헬라인의 박해로, 헬라 문화에 대한 유대 신앙의 저항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 <주요어>

유대 신앙, 헬라 문화, 디아스포라 유대이즘, 팔레스타인 유대이즘, 희생 제물,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헬라식 개혁, 제우스, 우상 숭배

#### <Key words>

Judaism, Hellenism, Diaspora Judaism, Palestine Judaism, Sacrifice, Letter of Aristeas, Hellenistic Reform, Zeus, Idolatry

---

46) Burkert, “Homo Necans,” 213-214.

## 참고문헌

- 김선정, “신-왕 사상에 관한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갈등,” 한국신약학회 편, 「신약논단」 6 (2000), 198-212.
- 박정수, “고대 유대교의 종파 형성의 정치적 성격,” 「신약논단」 15:2 (2008), 265-297.
- 박정수, “초기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의 지혜의 성격(전도서와 벤 시라서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12:1 (2005), 219-248.
- 양승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상」 43 (1999, 겨울), 33-67
- 양승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서양정신사에서 신, 인간, 역사의 변증법』, 서울: 나남 출판사, 1999.
- 왕대일, 『묵시문학과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천사무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 형성과 박해의 역사,” 「신학사상」 188 (1995, 봄), 한국신학연구소, 147-169.
- 한동구, “헬레니즘이 유대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91 (2003. 12.), 132-149.
- Barclay, J. M. G., “Using and Refusing Jewish Identity Strategies under the Hegemony of Hellenism,” M. Konradt and U. Steinert, eds., *Ethos und Identität. Einheit und Vielfalt des Judentums in hellenistisch-römischer Zeit*, Paderborn: Schöningh, 2002, 13-25.
- Bickerman, E., *From Ezra to the Last of the Maccabees*, New York: Schocken Books, 1962.
- Bickerman, E., *The God of the Maccabees. Studies in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Maccabean Revolt*, Leiden: Brill, 1979.
- Brown, J. P., *Ancient Israel and Ancient Greece: Religion, Politics, and Culture*, Minneapolis: Fortress, 2003.
- Carter, J., *Understanding Religious Sacrifice: A Reader*,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3.
- Collins, J., “Cult and Culture: The Limits of Hellenization in Judea,” J. J. Collins and G. E. Sterling, eds., *Hellenism in the Land of Israel. Notre Dame*, IN.: Univ. of Notre Dame, 2001, 38-61.

- Collins, J.,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Minneapolis: Fortress, 1993.
- Collins, J.,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Essays on the Jewish Encounter with Hellenism and Roman Rule*, Leiden; Boston: Brill, 2005.
- Gruen, E., *Diaspora. Jews amidst Greeks and Romans*, Cambridge, MA.: Harvard, 2002.
- Gruen, E., *Heritage and Hellenism: The Reinvention of Jewish Tradi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98.
- Hengel, M., *Jews, Greeks and Barbarians*, London: SCM, 1980.
- Hengel, M., *Judaism and Hellenism: Studies in their Encounter in Palestine in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1, Philadelphia: Fortress, 1974.
- Hengel, M., *The 'Hellenization' of Judaea in the First Century after Christ*, London and Philadelphia: SCM and Trinity International, 1989.
- Levine, L., *Judaism and Hellenism in Antiquity: Conflict or Confluence?*,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8.
- Momigliano, A., *Essays in Ancient and Modern Historiography*, Oxford: Oxford Univ. Press, 1977.
- Smith, Zonathan Z., "The Domestication of Sacrifice," Jeffrey Carter, ed., *Understanding Religious Sacrifice: A Reader*,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3.

<초록>

##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 그 만남과 갈등

-희생 제물의 경우-

왕대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이 글은 주전 4세기 이후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가 서로 어떻게 만났는지 추적하려고 한다. 문화 영역에서 유대이즘은 헬라 문화를 수용하는 데 별 저항을 하지 않았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유대 땅의 유대인이든,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식 경기를 즐기는 데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신앙과 종교의 창문에서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는 서로 갈등하였고, 충돌하였다.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팔레스타인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이런 갈등과 충돌은 마찬가지였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 헬라 종교에 대한 유대 신앙의 우려가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발견하는 유대이즘과 헬레니즘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면, 주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시도한 유대 신앙의 헬라식 변혁에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맞선 것은 팔레스타인 유대주의에서 발견하는 유대 신앙과 헬라 문화 사이의 대립을 나타낸다.

헬라 문화도 유대 종교처럼 본래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종교였다. 제물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제물을 도살하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의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는다는 점에서 헬라의 희생 제사는 구약 레위기의 화목제와 흡사하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매일 드렸던 유대인의 제사를 철폐시킨 것일

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외관상 헬라의 민간 신앙이 알렉산더가 고대 서아시아에 뿌리를 내리는 시점 이후부터 공공장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대인의 특수한 배타적 종교 의식을 헬라식으로 변형시키려 하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보편주의적 종교관이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조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런 일련의 사례는 헬라 문화와 유대이즘이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서는 서로 수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Abstract>

##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Sacrifice

Prof., T. I. Wang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s intended to understand how the Jewish faith and Greek culture had met together since the 4th century BCE. Jews were not reluctant to embrace Hellenistic culture in daily life.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Diaspora Jews and the Jews in the land of Israel to use Greek, to have Greek education, and to enjoy the games in the Greek gymnasium. But there were limits of Hellenization in the field of Jewish cult and worship. The violence associated with sacrifice can explain a good deal of Jewish frustration toward Hellenistic society. Jews in the land of Israel were resistant to follow the pagan custom, which lay at the root of Greek religion, as willingly as its counterpart in Alexandrian Jews. Careful research has found traces of

Jewish impervious trend to Hellenistic religion not only in Judean society in Jerusalem but also in Diaspora community in Alexandria. The Letter of Aristeas, which showed Jewish anger over against Hellenistic polytheism, represented the persistence of Jewish separatism in matters of worship and cult. Hellenistic reform of the Jewish sacrifice, imposed by Antiochus IV Epiphanes in the 2nd century BCE in Jerusalem, provoked an armed resistance that opened warfare.

Sacrifice was a pervasive reality in both Jewish faith and Hellenistic culture. Ancient Greek texts of animal-sacrifice showed a ritual experience, having a fire-altar and a blood-rite for burning and eating, which corresponded directly with the peace offering of the Old Testament. Why, then, did the king Antiochus IV Epiphanes attempt to abolish the everyday sacrifice in the Jerusalem Templ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would be solved by the fact that animal-sacrifice to the Olympian gods, which was preserved in the Greek folk custom, had disappeared in the public place since the Hellenistic culture put its root in Ancient Near East after the time of Alexander. But, more fundamentally, it must be measured that Hellenistic reform of the Jewish faith, unsuccessfully imposed by the king Antiochus Ephiphanes, was an attempt to reform the Jewish cult from a particular religious belief to follow the universal claim of religious truth that borrowed from the Greek thought.